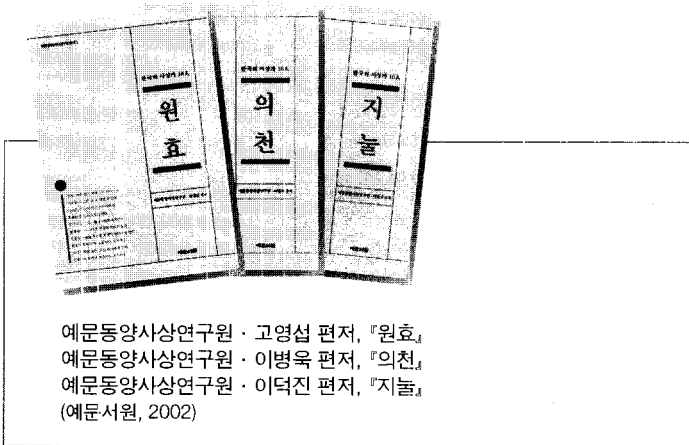


# 한국 사상계의 봉우리

차차석(동국대 강사)



## 1. 사족

예문동양사상연구원총서의 일환으로 한국의 사상이 10인선이 기획되었으며, 그 중에서 한국 불교의 대표적 사상가인 원효, 의천, 지눌 3인에 관한 연구논집이 바로 이 세 권의 책이다. 우선 한국의 사상이 10인선에 한국 불교사상가 중에서 3인씩이나 선정되었다는 점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까지 한국 철학 내지 사상하면 유학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이조

5백년을 지배한 성리학의 영향에서 기인한 것도 있겠지만 해방 이후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단의 내분과 그에 따른 동국대학교의 혼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데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3인씩이나 한국을 대표하는 사상가에 선정했다는 점에서 시대의 변화와 한국 사상계의 인식의 지평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우선 세 권의 책을 편집한 편저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비교적 활발하게 학술활동을 하고 있는 소장학자임을 알 수 있다. 『원효』를 편집한 고영섭은 삼국시대 불교사를 전공한 소장 학자이며, 특히 원측을 연구하여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이다. 『의천』을 편집한 이병욱은 중국 천태 사상을 연구하는 학자이며, 『지눌』을 편집한 이덕진은 지눌의 선사상을 연구하는 학자이다. 각각 자신들의 전공과 유관한 인물에 대한 논문들을 선별했다는 점에서 유의한 논문들을 간추렸으리란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번에 출간하게 된 『원효』, 『의천』, 『지눌』, 은 단행본이지만 평전은 아니다. 제목을 보아서는 평전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학술 논문을 모아 엮은 편저이다. 기실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원효, 그리고 고려 불교의 양대 산맥인 지눌과 의천 이 세 사상가의 위대한 업적과 사상의 탁월함에 대하여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연구 결과가 보고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편저자들은 기존의 연구 경향, 연구 성과, 문제점들에 대해 각각 해제를 통해 밝히면서 기존에 발표된 논문들 중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논문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놓았음을 이실직고하고 있다. 해당 인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료를 찾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려는 자상한 배려가 있으며, 이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재발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파심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들의 친절함에 감사를 드리게 된다. 그러나 냉정하게 이러한 편저가 왜 필요한 일이며, 이것이 신천지를 개척해야 할 이들 편저자들에게 그렇게 소중한 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또한 결론적으로 이들 3인을 대표적인 한국의 사상가로 선정한 것에 대해

서는 일견 시각의 변화를 감지하면서도 과연 원효를 제외한 지눌과 의천이 한국 불교사상계를 대표할 만한 인물들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 수많은 한국의 불교사상가들 속에서 이들을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모름지기 사상가는 아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도도한 역사와 사상의 흐름 속에서 그들이 과연 사상의 흐름을 전변시킬 만한 독창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독창성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불교 사상의 흐름을 변화시킬 정도의 보편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불교를 대표하는 사상가에 의상, 승랑, 원축, 김무상 등이 빠지고 대신 의천과 지눌이 선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

## 2. 감상

한국 불교사상사에 등장하는 숱한 고봉 중에서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아니 현재까지를 통틀어 최고봉을 꼽으라면 주저 없이 원효를 꼽는 불교학자가 대부분이다. 원효는 당시 문명의 중심국인 당나라에 유학 가지도 않았으면서 수많은 경론을 독파하고, 독창적인 사상체계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명저를 남겼다. 나아가 불교 사상을 현실 속에 구현하기 위해 무애박을 두드리고, 무애가를 부르며 신라의 촌락을 구석구석 누비며 중생들과 이품을 함께하고자 했던 실천가로도 귀감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화쟁 논리라는 독특한 사상체계를 수립하여 한국 불교 사상의 독자적인 사상적 기초를 세워 국내외에 혁혁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심지어는 성인으로써 추앙받게 된다.

고영섭이 편집한 원효 관련 논문 모음집인 『원효』라는 책을 통해 이상과 같은 원효의 진면목 전체를 살펴볼 수는 없다. 그러나 다양한 시각을 통해 원효 사상의 핵심과 특징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있다. 특히 편자 자신이 책머리에 실은 해제는 이 책의 전반적인 특징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알려주고 있다.

선정된 논문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편자의 의도와 역사가관이 어디에 있는가를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는가 하면 원효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 과제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화회和會든 통일이든 고영섭의 관심은 화쟁 사상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화쟁 사상이 원효의 핵심인 것 역시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효의 저술을 읽다 보면 그의 독서량이 엄청나게 방대하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동시에 당시의 경제적 문화적 지리적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서책을 구하여 읽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감탄을 금할 수 없다. 때문에 앞으로도 원효에 대한 연구 과제는 매우 많으며, 오히려 시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해야 적당할 것이다. 동시에 그가 차지하고 있는 불교사상사적 위상에 대한 접근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대승불교의 긴 역사 속에서 반야 사상과 유식 사상의 대립과 극복, 이어서 유상유식과 무상유식의 대립과 지양 등은 대승불교 사상의 폭을 넓히는 중대한 일이기도 했지만 비판적인 시각에서 말한다면 종교성의 탈각, 대중성의 상실이라 말해야 마땅할 것이다. 부파불교의 철학화, 탈대중화에 비판을 가하고 일어난 신불교 운동이 대승불교지만 중기 대승불교 이후는 다시 부파불교화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점에 일침을 가하고 불교 본연의 종교성을 회복하여 대중들과 교락을 함께하고자 하는 사유체계가 원효의 화쟁和諍 사상이다. 따라서 불교사상사 전반의 이해가 없는 화쟁 사상의 이해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에 불과하다고 혹평할 수 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화회和會와 통일統一에 관한 논문을 중심으로 책을 편집했으리라 생각하지만 불교사상사에서 원효의 위상을 규명하는 논문이 한두 편 실렸으면 하는 아쉬움을 감출 수는 없다.

이병욱은 『의천』의 편저자 해제에서 의천 사상의 기초를 다진 사람은 조명기라고 밝히고 있다. 조명기는 『고려대각국사와 천태사상』이라는 저서를 통해 방대한 의천의 자료를 정리했으며, 아울러 그의 사상을 일목요연하게 정

리했다. 나아가 그는 의천이 원효의 화쟁 사상을 계승하여 종합일승을 이념으로 삼고 정혜쌍수를 실천 방안으로 삼았다고 평하고 있다. 사실 의천은 원효를 재발견하고 그를 화쟁국사로 추존했으며, 분황사를 찾아가 제사를 지내고 그의 덕을 사모했다. 원효의 사후 그를 재평가하여 보살의 지위로 격상시킨 최초의 인물이 의천이라는 점에서 안광이 지배를 철하고 있는 의천을 발견하게 된다. 조명기의 학문적 바탕 위에 의천의 사상을 전체적으로 체계화한 인물은 박종홍이다. 그는 『한국사상사』에서 의천이 주체적인 불교 사상을 수립했다고 평하고 있다. 이어서 최병헌과 이영지는 의천 사상의 연구를 구체화하게 되며, 이상에 언급한 여러 선학들의 토대 위에서 의천 사상의 연구가 성숙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편저자의 이상과 같은 관점은 천태종을 개창하게 되는 원인과 정치적 배경, 의천의 사상 특히 정도와 화엄 그리고 천태 등에 유관한 대표적인 논문들을 선별해 수록하고 있다. 그러면서 의천 사상의 연구 과제에 대하여 『원각경소』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송나라 화엄종의 대표적 승려 중의 한 사람인 정원의 화엄사상이 미친 영향, 『원종문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등이 앞으로 더욱 연구되어야 할 과

해당 인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료를 찾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려는 자상한 배려가 있으며, 이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재발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파심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들의 친절함에 감사사를 드리게 된다.

제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의천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학자 내지 일반 철학자, 그리고 불교학 연구자의 시각이 제각기 다르다는 점을 밝혀 두지 않을 수 없다. 이점은 물론 원효나 지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역사학자는 너무 사회 정치적 입장에서 의천을 바라보고 평가한다. 일반 철학자들은 단순히 사상적인 입장에서만 접근하려고 하며, 불교학자들은 전문 종교인이라든가 입장에 너무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한 인물에 대한 평가는 각도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다는 점도 전제할 필요가 있다. 의천의 경우는 그가 왕족 출신의 불교사상가였으며, 동시에 왕족 출신의 출가자들 중에서도 정치, 사회 일반에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정치와 연관해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큰 것도 필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와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천태종을 개창하고, 주전론을 주장했다는 점은 대승불교 사상의 핵심인 보살 사상과 직통하고 있다는 점을 망각해선 안 된다. 그런 점에선 오히려 현실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는 사회경제에 관한 새로운 논문, 혹은 중국과 연결된 사회문화와 직결된 논문들이 보이지 않는 점은 옥의 티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덕진의 지눌은 우선 해제를 읽어볼 만하다. 편자 자신이 지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라는 사실은 은연중에 알려주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지눌에 관한 자료와 이제까지의 연구 성과, 그리고 개인별 연구 현황,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하여 세밀한 분석을 곁들여 놓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의 가치를 논한다면 해제에 모든 것이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선종의 핵심인 깨달음의 문제와 지눌의 저서에 관련된 중요 논문들을 중심으로 책을 편집하고 있다. 지눌 자신이 선승이자 한국 조계종의 중흥조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중국 불교 사상 중에서 한 종파인 선종을 시대적 상황에 맞도록 재해석한 인물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편저자 역시 해제의 말미에서 지눌 연구의 과제에 대한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으며, 그

중에 중국 선종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지눌의 사상을 재조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편저자의 고백처럼 중국 선종 사상과 관련하여 연구하는 작업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동시에 선종 사상이 배태하여 발달하게 되는 문화 사상적 배경과 지눌의 사상을 유기적으로 연구하는 작업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지눌 자신은 화엄 사상의 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고백하고 있으며, 화엄 사상가들 중에서도 이통현장자의 『신화엄론』이란 책을 읽고 사상적인 일대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통현장자의 화엄 사상과 관련된 논문이 한 편 정도라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물론 최성렬의 '보조의 『화엄신론』 이해'라는 논문이 있다. 이것은 이통현장자의 사상적 영향을 어떻게 밝혔는가를 밝혀 주는 귀중한 논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직접 이통현장자의 사상을 분석하고, 그 분석된 결과를 지눌의 사상에 대입하여 연구한 논문이 없다는 불평이다. 이통현장자의 화엄 사상은 「입법계품」을 정종분으로 삼는 데 특징이 있다. 「입법계품」은 53선지식을 방문하여 문도問道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35인의 선지식은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점에서 촉사이도觸事而道の 전통 사상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중국 화엄 사상가들과 연계된 연구 결과도 지속적으로 발표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지눌이 살았던 시대는 정치적인 외호 속에서 불교가 최전성기를 자랑하던 고려시대이다. 이 시대는 외형적인 화려함 속에 교종과 선종의 대립과 갈등이라는 내적인 문제점이 시대적 과제로 남아 있었다. 국교로 추앙 받던 시대 풍조는 교단의 통제력이 이완된 틈을 타 수행보다는 세속적인 출세에 관심을 기울이는 무리들 역시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시대의 흐름을 읽고, 이끌어 가고자 하는 불교사상가들의 노력이 관성화되는 경향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런 교단 내외적인 배경 속에서 교종과 선종의 통합과 지양, 그리고 종교적 본연의 입구 중의 하나인 인세人世와 제중濟衆의 문제는 당대를 살아가

는 의식 있는 수행자들에게겐 커다란 하중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수립된 사상체계가 바로 지눌의 선교일치론임을 감안한다면 불교적 구원론에 대한 지눌의 입장이 보다 깊고 넓게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세 권의 책을 읽고 그 감상을 몇 자 적어 보았다. 크게 원효의 화쟁 사상을 토대로 의천의 교관병수, 지눌의 교선일치 등의 사상적 전개를 바라볼 수 있다. 대립과 갈등, 그리고 지양을 위한 사색의 편린들이 세 사상가의 저작이 되어 연구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우뚝 서 있는 것이다. 사실 이 세 사상가는 당대에 사상계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으며, 그럼으로써 한국 사상계에 한 봉우리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상 내지 불교 사상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간과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마침 훌륭한 징검다리를 놓았다고 생각된다. 乘

차차석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전공은 법화 천태 사상이다. 『구도자의 나라』, 『현대한국종교의 역사이해』 등 다수의 저역서가 있으며, 『도생의 '법회의소'에 나타난 이의 개념 고찰』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현재 동국대 불교학과 강사 겸 현대불교신문사 상임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